

국외출장복명서

1. 출장자

- 권수진(형사법제연구실)

2. 목적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일본 행형 규정은 우리나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행형 관련 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 이에 일본의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일본의 교정 처우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시설의 참관 및 관계자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바, 세부적으로는 수용자 자녀 양육 및 처우 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봄.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 처우와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3. 출장지

- 일본 오사카 교정시설
 - 오사카구치소(大阪拘置所),
 - 와카야마형무소(和歌山刑務所)
 - 가코가와형무소(加古川刑務所)
 - 오사카의료형무소(大阪医療刑務所)

4. 출장기간

- 2019년 9월 1일(일) - 9월 5일(목) (4박 5일)

5. 출장일정

일자	주요 일정	내용	회의참석자
9월 1일(日)	김포 → 오사카	출국 및 도착	
9월 2일(月)	오사카구치소 (大阪拘置所) 大阪府大阪市都島区友渕町 1 - 2 - 5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시설참관	五十嵐正一 大阪拘置所總務部長 (06-6921-0371)
9월 3일(火)	와카야마형무소 (和歌山刑務所) 和歌山市和歌山県 383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시설참관	望月英也 和歌山刑務所長 외 3인 (073-471-2231)
9월 4일(水)	가코가와형무소 (加古川刑務所) 加古川市加古川町大野 1 5 3 0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시설참관	吉田博志 加古川刑務所長 외 2인 (079-424-3441)
9월 5일(木)	오사카의료형무소 (大阪医療刑務所) 大阪府堺市堺区田出井町 8 - 8 0	자문회의 및 자료수집, 시설참관	加藤保之 大阪医療刑務所長 외 2인 (072-228-0145)
	오사카 → 김포	이동 → 귀국	

6. 출장 세부내용

(1) 일본 오사카구치소(大阪拘置所) 방문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오사카구치소(大阪府大阪市都島区友渕町 1 - 2 - 5)를 방문하여, 이가라시 테이이치(五十嵐正一) 총무부장을 만나 오사카구치소 현(現) 시설 및 신축 중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뒤 해당 시설을 참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오사카구치소 신축 장면	오사카구치소 방문

○ 시설 개요

오사카구치소는 도쿄구치소(3,000명 수용)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가능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구치소임. 오사카구치소는 오사카부(大阪府) 경찰 및 오사카 지검에서 검거된 피의자·피고인과 긴키(近畿)지방 2부 4현(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한 피고인 및 대법원에 상고한 피고인 등을 수용하고 있음. 또한 오사카구치소는 ‘물의 도시’ 오사카 도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건물 규모와 수용인원 등 모든 면에서 서일본 최대 규모의 미결 수용 시설로 평가받고 있음.

현재 오사카구치소의 부지면적은 약 72,800㎡, 청사면적은 약 52,300㎡, 수용시설 면적은 약 20,500㎡임.

오사카구치소의 최대수용인원은 1,300명인데, 2019년 현재 약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음. 수용자 중에서 남자 수용자는 약 900명, 여자 수용자는 약 100명임.

○ 연혁

오사카구치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03년 오사카부 감옥서(監獄署)가 분할되어, 텐진바시스지(天神橋筋) 1가에 미결감옥으로 호리카와(堀川) 감옥이 신설됨. 이후 1941년 오사카구치소로 독립하였고, 1957년 5월 현재 위치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63년 이전하였으며, 1972년에 전체 공사가 완료됨. 2010년 현재 위치에 전체 개축공사가 개시되었고, 2017년 11월 제2기 공사를 시작하여 7층 규모의 방사형의 구치소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당시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으로 2년 후 완공 예정이며, 완공 후 최대수용인원은 2,500명임.

○ 직원수

오사카구치소의 직원수는 공안직이 490명, 의료직 18명으로 총 508명임. 구체적으로 의료직원은 상근직으로 의사 9명, 간호사 5명, 약제사 등 4명, 총 18명임. 이에 더하여 비상근직의 겸임이사 4명, 간호사 1명, 약제사 등 3명,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음.

○ 수용인원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은 미결구금이 적음. 2019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오사카구치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미결 738명, 기결 195명으로 전체 933명임. 기결수는 스폰 포장, 종이박스 접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음.

2019년 7월 말 기준 오사카구치소 미결 수용인원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각성제 29.5%, 절도 18.9%, 살인 6.0%, 사기 9.5%, 상해 6.6%, 강도치사상 3.8%,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사상 2.3%, 강도 1.1%, 기타 22.4%로 각성제 사범이 가장 많음.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오사카구치소의 환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는 신체질환자 172명, 비신체질환자 3,413명, 병원이송자 36명, 사망자 1명임. 이 중 기결수 환자는 신체질환자 67명, 비신체질환자 308명, 병원이송자 8명, 사망자 1명임. 미결수 환자는 신체질환자 105명, 비신체질환자 3,105명, 병원이송자 28명임.

오사카구치소의 여자수용자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3년 177명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9년 현재 92명임. 2019년 현재 여자수용자 중 임신부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수용자는 없음. 일본 교정시설에서도 과거 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유아를 시설 외로 내보내게 되었고, 이후 과밀수용이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

○ 처우

- 구분수용

오사카구치소는 독거실(1인실)과 혼거실 두 종류가 있으며, 수용거실 구분은 신분이나 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구분 수용하고 있음.

- 개선지도

오사카구치소에서는 일반 개선지도와 특별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일반 개선지도에는 피해자 감정 이해, 교육 비즈니스 교육, 알콜의존 회복 프로그램, 특수 사기사범 지도 등이 있으며, 특히 여자수용자에 대해서는 절도방지 지도가 있음. 특별 개선지도에는 약물 의존 이탈지도, 피해자의 관점을 도입한 교육, 교통안전지도 등이 있음. 이 외에 자격취득으로서 부기(1-3급), 주산(1-7급), 고등학교 검정고시 등이 있음. 클럽활동으로 종교, 주산, 민요, 통소가 있고 교양강좌로 뉴스, 꽃꽂이, 다도 등이 있음.

- 취업지원

오사카구치소는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헬로 워크, 코레 워크, 취업 지원 사업기구와 함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오사카구치소는 수용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상담, 면접지도, 구인강연 등을 시행하고 있음. 보호관찰소에서는 직업상담, 신원보증 등을 실시함.

- 식사, 일용품, 의류 등

식사는 시설에서 지급하고, 침구와 의류는 대여하지만, 미결구금자 대부분은 자기 의류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식료품과 일용품은 규율이나 위생상 지장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구입 가능함.

- 생활

건강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운동을 실시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음. 건강면·위생면에서 입욕을 실시하고 있음.

- 의료처우

정기 건강검진 및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함.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수시로 진료하고 있음.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하여는 구치소 내 병실에 수용하여 의사가 치료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의를 초청하여 진찰을 받게 하거나 외부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고 있음.

- 면회 및 우편

원칙적으로 미결구금자는 상대방 제한 없이 면회와 편지의 발신 및 수신에 가능함. 면회는 변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금의 목적인 범죄증거의 인멸 방지 등의 차원에서 직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음. 또한 편지의 발신 및 수신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검사함.

(2) 일본 와카야마형무소(和歌山刑務所) 방문

일본 오사카 인근 와카야마시에 위치한 와카야마형무소(和歌山市和歌山県 383)를 방문하여 히데야 모치주키(望月英也) 소장, 사이토 노리코(齊藤紀子) 처우부장, 아오야마 준코(青山純) 법무성 오사카교정관구 제2부 성인교정조정관을 만나 자문회의를 열어 와카야마형무소의 시설 개요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 참관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시설 개요

와카야마형무소(和歌山刑務所)는 일본 여자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임. 일본 전역에는 여자수용자 교정시설이 형무소 6개, 형무지소 4개, 사회복귀센터 1개로 총 11개 시설이 있음.

현재 와카야마형무소의 부지면적은 약 36,820㎡, 청사면적은 약 11,039㎡, 수용시설 면적은 약 17,777㎡임.

와카야마형무소는 1869년 최초로 설치되어, 1932년 5월 현재의 와카야마시로 이전하였고, 1944년 3월 여자형무지소로 지정되어, 여자수용자의 수용을 개시하였음. 1946년 4월 본소로 승격하여, 와카야마형무소로 개칭되었으며, 1992년 11월 전체 개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3월 공사를 완료하였음.

와카야마형무소 수용 정원은 500명이나, 2007년에는 수용인원 689명으로 수용률이 137%까지 이르렀음. 이후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396명으로 감소함(수용률 79.2%).

특히 와카야마형무소는 수용자 중 입소 전 미용경력이 있는 수용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미용기술 연마와 숙련을 위해 헤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헤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직원수

2019년 와카야마형무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 수는 행정직 1명, 공안직 191명, 의료직 4명으로 총 196명임. 이 중 약 80%가 여성직원으로 형무관, 작업전문관, 조사전문관, 의사, 간호사임. 처우 분야 직원의 연령대는 10대 4.5%, 20대 31.1%, 30대 22.6%, 40대 24.3%, 50대 13.6%, 60대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1.2세로 일본의 다른 형사시설 직원에 비해 20대가 가장 많음.

○ 수용인원

2019년 8월 말 기준 와카야마형무소의 수용인원은 396명임.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수용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6.6%, 30대 20.8%, 40대 26.4%, 50대 20.1%, 60대 10.9%, 70대 10.9%, 90대 이상 4.3%로, 수용인원의 평균 연령은 50세이며, 최고령자는 87세, 최연소자는 23세임.

수용자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각성제 44.7%, 절도 30.7%, 살인 11.2%, 사기 93.0%, 방화 1.8%, 도로교통법 위반 1.3%, 기타 7.4% 임. 일본 여자수용자 중 각성제 사범이 많으며, 55세 이상 고령수용자의 경우 절도가 많고, 섭식장애도 있음.

수용자의 형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3년 미만 47.5%, 5년 미만 25.1%, 8년 미만 10.4%, 10년 이상 7.4%, 무기징역 8%(15명), 1년 미만 2.5%임. 초범은 185명임.

수용자 중 외국인은 중국인 7명, 필리핀인 10명, 태국인 9명, 대만인 3명, 한국인 2명 등을 비롯하여 14개국(12개 언어 사용)의 48명임.

다만, 2019년 9월 현재 와카야마형무소에는 여자수용자 중 임신부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수용자는 없음.

○ 처우

- 작업, 훈련, 개선지도

수용자는 1공장부터 6공장까지 6개 공장에서 생산작업, 자영작업(취사, 세탁, 청소 등), 직업훈련에 종사함. 특히 여자수용자 중 미용사 면허보유자 2명이 출소 후 취업에 대비하여 1년간 미용기술의 유지·향상,接客 매너 등을 습득하고 있음. 집합훈련으로는 판매사 과정이 있으며 정원 10명에 대해 6개월 간 훈련을 통해 판매사 3급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관훈련으로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정원 15명에 대해 2개월 간 출소 후 취업 대비, 기초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호복지 과정에서는 정원 8명에 대해 6개월 간 복지사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2018년에는 타청 직업훈련으로 조리과 과정 1명이 선발되어 이송되었고, 미래사회복귀촉진센터 조리과와 푸드 코디네이터 과정으로 각 1명씩 선발되어 이송되었고, 카사마츠형무소로 미용과 과정 1명, 가코가와형무소 의료사무과로 4명이 선발되어 이송됨.

와카야마형무소에서도 수용자 고령화로 인해 고령화특수프로그램으로 고령자 생활지원지도, 65세 이상 수용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과정, 노인건강운동과정, 고령자생생운동과정을 실시함. 그리고 섭식장애 수용자 12명, 체중관리 51명, 비만지수 15 이하자 3명에 대하여 비강경관영양, 종합 영양 유동식, 상담, 식사장소 및 시간의 별도 지정 등을 하고 있는바,

개별대응에 따른 직원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와카야마형무소는 여자시설 지역 지원 사업으로 2019년 7명(사회복지사 1명, 보건사 1명, 계호복지사 2명, 조산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건강운동지도사 1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하였음. 이들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알콜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지도를 하였음. 특히, 채용내정자에 대한 좌담회(女子會)가 개최되고 있음.

또한 수용자에게 일반 개선지도와 특별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수용자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개선지도로서 피해자 감정 이해 지도, 행동적정화지도, 자기개발지도, 자기개선목표달성지도, 체육, 행사, 사회복지지원지도를 실시함. 특별 개선지도로서 개별수용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집단을 편성하여 약물 의존 이탈지도, 피해자의 관점을 도입한 교육, 교통안전지도, 취업지원지도를 실시함. 교과지도로는 국어, 산수 등의 보습교과지도와 자주학습, DVD 시청 등의 특별교과지도가 있음. 보습교과지도는 학교교육법 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에 준하는 교육의 실시를 의미하며 자체직원, 비상근직원, 처우공조직원 등의 지도자가 6개월 24단원의 국어, 6개월 24단원의 수학 교육을 실시함. 특별교과지도는 고등학교졸업정도인정시험의 지도이며 4개월 3단원의 고졸인정시험수험강좌를 실시, 연 2회의 인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18년도에는 응시자 11명, 과목별 합격자 9명의 실적을 올렸음.

- 의료처우

와카야마형무소에서는 내과, 정신과, 치과, 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상주하여 환자 발생시 원칙적으로 내부진료를 하고 있음. 형무소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의료형무소에서 진료 및 치료하며, 외부병원 이송 및 입원 치료, 초빙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식사

식사는 쌀과 보리가 7:3의 비율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식은 생활 활동 강도에 따라 A식은 1400Kcal, B식은 1200Kcal, C식은 1100Kcal, 부식은 900Kcal로 열량을 조정하여 제공함. 수용자 하루 식사 단가는 약 500엔임. 수용자 평일 점심식사는 공동식당에서 함.

	 신년 크리스마스
식당(평일 점심 시간)	밥밥, 구운닭고기 등/ 빵, 샐러드, 치즈 등 메뉴

- 임신, 출산, 유아 양육

일본 「수용자의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훈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교정시설에서 ‘임산부’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상당 기간 내의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수태 후 5월 이상을 경과하거나 출산 후 2월을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에서 유아의 나이 만 1세까지 양육이 가능하고, 이에 더하여 6개월까지 양육기간 연장이 가능함. 일본 교정시설에서도 과거 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유아를 시설 외로 내보내게 되었고, 이후 과밀수용이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제도와 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불신이 적어서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대부분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위탁·양육하고 있음.

(3) 일본 가코가와형무소(加古川刑務所) 방문

일본 오사카시에서 약간 떨어진 가코가와시에 위치한 가코가와형무소(加古川市加古川町 大野 1530)를 방문하여, 요시다 히로시(吉田博志) 소장, 스도 타카유키(須藤隆行) 분류교육부장, 아라마키 유이(荒巻由衣) 수석교정처우관을 만나 자문회의를 열고, 가코가와형무소의 시설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참관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시설 개요

가코가와형무소(加古川刑務所)는 가코가와시에 위치한 교정시설로 1948년 5월 옛 오사카 육군항공보급창 분원 터에 오사카형무소관할 가코가와건축장으로 발족하여 1949년 6월 가코가와형무소로 독립하였음. 1964년 12월에는 교통사범 금고수형자의 집금시설로 지정되었음. 1973년 10월부터 22년간 전체 시설 개축공사에 착수하여 1996년 3월 개축공사가 완료되었음. 2007년 민간위탁사업을 도입하였음. 2010년 12월에 여자수용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3월 여자수용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여자수용자의 수용을 시작하였음. 특히 일본 4개 형무소에서는 고령수형자가 많고, 위생 및 복지상의 이유로 취사장 작업자를 구하기 어려워 취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가코가와형무소도 2016년 3월 급식업무의 민간위탁을 개시하였음.

현재 가코가와형무소의 부지면적은 약 223,000㎡임(개방구역은 약 28,000㎡, 여자수용구역은 약 9,700㎡).

○ 시설 특징

- 범죄경향의 정도에 따라 형기 10년 미만의 남자 징역 수용자, 금고 수용자, 교통사범 수용자, 여자수용자로 구분.
- 외부통근작업 실시.
- 전국 형사시설의 수용자 의류 생산
- PFI(민간합작) 방식에 의한 총무 및 경비 업무 등 위탁(사무지원, 시설경비, 물품·서신·수용거실의 검사, 운전업무 등)
- 공공서비스개혁법에 의한 급식업무의 민간위탁
- 성범죄재범방지지도의 촉진기간시설, 취업지원강화 교정시설로 지정됨.

	
양재공장, 직업훈련	고령자유닛, 보육실, 작업상황, 직업훈련(의료사무)
	
관민협동체제(급식업무)	여자 사동

전국적으로 여자수용자의 과잉수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가코가와형무소에서 여성수용자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음. 여자수용자 구역은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바닥의 단차(턱)를 없애는 등 장애인, 노인을 배려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한편, 개방구역의 식당공장 작업장 등은 시정하지 않고, 작업장 등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 면회는 직원 입회 없이 실시할 수 있고, 후생, 도서, 체육위원회 등이 조직되어 자발적인 자율정신을 기르고 사회복귀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개방구역의 일부 수용자는 직원 동행 없이 민간사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고 있음.

○ 직원수

가코가와형무소의 직원 정원은 257명으로, 이 중 민간위탁직원은 110명임.

○ 수용인원

- 가코가와형무소의 수용 정원은 1,281명(일반구역 961명, 여자수용구역 200명, 개방구역 120명)임. 2019년 9월 4일 기준으로 가코가와형무소 수용 현원은 일반구역 692명

(72.0%), 개방구역 59명(49.2%), 여자수용구역 153명(76.5%)임. 가코가와형무소에는 기결 수용자인 여자수형자가 많지 않아 개방시설인 개방구역에는 수용되지 않고, 모두 여자수용구역에 수용되어 있음.

- 여자수형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9.1%, 30대 18.9%, 40대 24.4%, 50-64세 23.8%, 65세 이상 23.8%로, 평균 연령은 50.3세, 최고령자는 85세임. 가코가와형무소의 여자수형자 중 고령자는 70% 이상임. 근래 여자수형자의 고령화로 인해 가코가와형무소에 임신, 출산 수형자는 많지 않음.
- 여자수형자의 죄명별 형기를 살펴보면, 각성제 42.7%, 절도 40.9%, 사기 4.9%, 기타 10.9%로, 각성제 사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여자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 1.2%, 1년 이상 3년 미만 59.2%, 3년 이상 5년 미만 29.3%, 5년 이상 7년 미만 3.0%, 7년 이상 10년 미만 3.0% 10년 이상 4.3%로, 여성수형자 과반수 이상이 형기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함.

○ 처우

- 임신, 출산, 유아 양육

일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일본 교정시설에서도 시설 내에서 유아 양육이 가능하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유아를 시설 외로 내 보내게 되었음. 이후 과밀수용이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코가와형무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임.

일반적으로 가코가와형무소에서 임신부는 독거실(1인실)에 수용되는데, 2019년 9월 4일을 기준으로 가코가와형무소에 임신부는 없음. 2019년 6월에 가코가와형무소에 수용된 여자수형자가 출산하였으나, 아기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음.

임산부 식사는 일반수형자 식사와 동일하며,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임산부는 외부병원에서 출산하며, 정기통원·조산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의사에게 연락하여 조치함. 또한 상근 간호사가 출산 징후 등을 교육하고, 임산부를 위해 필요에 따라 비상근 조산사가 가코가와형무소에 와서 애착관계 설명 및 상담을 실시함. 작업은 임신 유무에 관계 없이 여자수용자는 해당 분야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임산부의 출산 전 휴가는 없고, 출산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작업 휴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작업에 복귀함.

일반 수형자에게 시계는 없으나, 모범수 또는 공부하는 수형자는 시계를 소지할 수 있음. 임산부의 경우 진통 간격 측정을 위해 시계를 넣어 줌.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은 생후 12개월, 추가로 6개월이 허용될 수 있음. 법적 보육실 규정은 없음. 가코가와형무소 여자 사동에는 유아 양육을 위한 보육실이 마련되어 있음. 보육실은 거실과 연결된 세면실, 욕실, 작은 야외 테라스가 있으며, 보육실 내부에는 다다미방

에 아기 침대, 아기 욕조, 아기 카시트, 아기 기저귀 등의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음.

	
가코가와형무소 보육실 입구	가코가와형무소 보육실 내부 테라스
	
가코가와형무소 보육실 내부	가코가와형무소 보육실 비품
	
보육실 내부 세면실	보육실 내부 욕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음. 가코가와형무소 여자수형자 54명 중 50명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없음.

- 작업, 훈련, 지도

가코가와형무소의 작업종류로는 목공, 양재, 금속 등이 있음.

직업훈련으로는 건설, 목공, 빌딩관리, 정보처리, 농업, 의료사무, 개호복지, 복지업무능력 등이 있음.

가코가와형무소에서도 일반 개선지도와 특별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일반 개선지도로

상습누범절도방지도, 알콜예방, 고령자교육, 체육, 행동적정화지도, 자기이해촉진지도, 가족관계강좌 등이 있음. 특별 개선지도로 약물의존 이탈지도, 성범죄재범방지도, 피해자의 관점을 도입한 교육, 교통안전지도, 취업지원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음. 강사는 직원, 대학교수, 자동차교습소직원, SST 강사, 상담 카운슬러 등이 있음.

(4) 일본 오사카의료형무소(大阪医療刑務所) 방문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오사카의료형무소(大阪府堺市堺区田出井町 8-80)를 방문하여, 카토 야스유키(加藤保之) 서무과장, 야노 미츠아키(矢野光明) 서무계장, 시게야마 나오키(重山直樹) 주임교정처우관을 만나 관계자 자문회의를 열고, 오사카의료형무소의 시설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참관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수집함.

	
오사카의료형무소	오사카의료형무소 의료시설
	
오사카의료형무소 방문	오사카의료형무소 자문회의

○ 시설 개요

일본 내 의료형무소로는 도쿄, 오사카, 기타큐슈, 오카자키에 4개 기관이 있음. 이 중 오사카시에 위치한 오사카의료형무소는 일본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의료형무소인데, 진료과목

에 따라 수용자를 관구별로 이송하고 있음. 일본 동부지역을 담당하는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가 최근 신축된 것과 비교하면, 오사카의료형무소는 건물과 일부 시설은 상대적으로 노후되었다고 할 수 있음.

오사카의료형무소의 부지면적은 15,582㎡, 건물면적은 8,710㎡임. 그리고 오사카의료형무소 건물은 여자병동, 북(北)병동, 남(南)병동, 서(西)병동, 의료관리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오사카의료형무소는 냉난방시설이 전체 수용사동에 되어 있지는 않고, 환자 상태에 따라 냉난방이 결정됨. 환자 사동은 주로 침대로 되어 있고, 치료작업실을 운영하여 손끝 감각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오사카의료형무소는 1972년 12월 오사카교도소 부지 내에 신축 공사가 시행되어, 1974년 3월 오사카형무소 지소로 개칭하였음. 1983년 10월 인공투석실을 신설하고, 정신과 환자에게 집단 작업치료를 시작하였음. 이후 2001년 본소로 승격되었고, 2006년 2월에 CT가 설치되고, 2007년에 여자환자를 수용함. 2014년 PACS 시스템, 화상보존통신시스템(이미지저장통신시스템), 임상검사시스템 세트 등이 도입되었음. 현재 오사카의료형무소에서는 내과, 외과, 정신과, 비뇨기과 등의 질환을 접수하여 수용자를 수용하고,

오사카의료형무소는 내과, 외과, 정신과 등 질병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내시경, X-ray 4대, CT, 초음파, 인공투석 3대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진단, 화학요법, 인공투석요법, 수술 등의 치료를 실시하며, 서일본의료센터로서 독점적인 의료형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MRI 등 무거운 의료기기는 현재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도입이 어려워 MRI 검사와 응급수술 등은 외부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특히 오사카의료형무소는 혈액, 심전도, 폐기능, 운동부하, 뇌파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폐병을 감별하기 위해 검사 시 촬영을 하고 있음. 혈액검사는 간염, 에이즈, 매독, 암 등 6가지만 하고 있음. 소변검사는 2대의 기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생화학 검사는 당뇨, 헤모글로빈 등을 검사함. 2018년에는 외과수술 62건(악성종양 등 경관절제술, 폐절제술), 비뇨기과 12건(방광종양의 경막절제술 등), 피부과 5건(감염성 분말절개 등), 내과 13건(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등 악성종양 등)을 실시하였음. 수술 환자는 수술 후 하루 정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음. 또한 별도로 운용되는 약제실에서는 피부에 닿으면 위험한 항암제 등을 저압실에서 별도 보관하고, 마약성 약품은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또한 오사카의료형무소는 인근 형사시설에서 의뢰받은 세균 등의 검사, 전문의에 의한 외래진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뇌혈관 장애 등 기능장애 환자 수용자에 대해서는 재활기능회복에 힘을 쓰고 있음. 이와 더불어 치료의 일환으로 가벼운 작업이나 원예 등의 작업요법을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음.

오사카의료형무소에서의 의료비는 국가부담 원칙임.

○ 직원 현황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직원 정원은 172명으로, 행정직 1명, 공안직 87명, 의료직 정원 84명임. 의료직은 의사 19명, 간호사 55명, 기타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10명임. 현재 근무 중인 의료직 직원은 의사 28명으로 상근 13명, 겸임 15명임. 소장은 의사이며, 소장 이하 총무부, 처우부, 의료부가 있고, 의료부는 보건과, 의료제1과, 간호과 등 7개 과가 구성되어 있음.

○ 수용 현황

오사카의료형무소의 수용 정원은 기결 267명이며, 이 중 환자가 186명, 경리계(운영지원작업)가 81명임. 여자 수용 정원은 23명(환자 13명, 경리계 10명)임. 오사카의료형무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남자 114명, 여자 14명으로 총 128명이었고, 2017년에는 남자 114명, 여자 14명으로 총 128명이었으며, 2018년에는 남자 112명, 여자 10명으로 총 122명이었음.

수용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20대 3명, 30대 4명, 40대 7명, 50대 18명, 60대 27명, 70대 26명으로, 60대와 70대가 절반을 차지함.

환자의 질병 유형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암 100명, 소화기계 환자 22명, 정신과 7명, 신장 3명, 순환기 21명, 감염병 2명, 호흡기 8명, 피부과 2명 등으로 암 환자가 대부분임. 한편 오사카의료형무소에서는 말기 암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2016년 58명, 2017년 51명, 2018년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오사카의료형무소에는 별도의 시체보관실이 시설 내부에 마련되어 있음.

특히,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오사카의료형무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2명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는 타 질환 수용자의 처우와 차이가 없으며, 상태에 따라 처우를 받고 있는데, 작업치료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찰실에 수용되기도 함.

○ 처우

- 의료처우

오사카의료형무소는 의료시설인 동시에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오사카의료형무소의 수용 대상에는 환자인 수용자와 취사·세탁·청소 등의 운영지원작업을 행하는 작업 수용자가 있음. 그리고 처우 및 의료 등의 활동을 원활하고 동시에 하기 위해서 규율질서 유지가 필요함. 수용과 규율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처우부서의 중요한 임무라 하겠는데, 환자 수용자의 규율위반은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있으므로, 처우부서 직원은 의료간호직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환자 수용자를 적정하게 처우하고 있음.

특히, 환자 면회는 1회 40분 정도이며, 월 2-3회 실시함.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방문자가 사동 거실에 와서 면회가 가능함.

정신질환자는 출소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관리가 곤란해지면 강제입원도 가능함. 출소자가 자립능력이 없다면 갱생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에 수용됨. 즉시 입원·출원이 필요한 출소자의 경우, 출소 시기가 주말이면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월요일에 출소하게 함.

- 작업, 훈련, 지도

오사카의료형무소는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 재활치료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독서지도, TV시청,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약물 의존 이탈지도, 피해자 감정 이해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환자는 질병의 상태에 따라 원예치료 외에도 플라스틱 조립, 제품 조립 등 가벼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 활동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는바, 이는 오사카의료형무소가 일반 교도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외부협력자인 위원과 교사 등에 의해 고민상담, 강연 등이 실시되고 있음.

- 분류, 보호

분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처우담당자와 긴밀한 협조하에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환자 특유의 불안, 초조 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갱생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특히 환자의 보호조정석방 후에도 치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분류·보건·간호가 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보호조정, 갱생보호, 복지 및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식사

오사카의료형무소는 의료전문시설로서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환자 수용자로 구분하여 평상식 및 치료식을 제공함. 평상식은 건강관리를 고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식은 주치의의 식사 지시에 따라 영양사의 지도 하에 식단을 변경, 조리하고 건강상태에 적합한 급식을 관리함.



7. 시사점

(1) 임신부, 유아 양육, 미성년 자료를 둔 수용자 처우

- 일본은 여자 수용자를 위한 전용 교도소가 4개가 있고, 그 외 지소, 여성개방교정시설, 여자 수용자 전문 사회복귀촉진센터 등 11개의 다양한 여자 수용자 전문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자 수용자를 위한 전용 교도소가 청주여자교도소 1개에 불과함. 우리나라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자 수용자의 증가와 임신부, 유아 양육 수용자를 위한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여자 수용자를 위한 교정시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일본은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임신부, 유아 양육 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제65조, 66조). 그러나 일본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를 위한 특별한 처우는 많지 않음. 다만, 일본 교정시설에서도 과거 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의 일환으로 유아를 시설 외로 내보내게 되었고, 이후 과밀수용이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불신이 적어, 대부분의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이후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함.
- 최근 우리나라도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바, 수용자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용자 자녀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아동복지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함.
-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여자 전용 교정시설을 확충에 더하여 여자 전용 교정시설에 보육실 형태 또는 소망의 집 형태의 유아 양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수용자 유아 양육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을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명시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가장 큰 문제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유아 양육 관련 공간을 확보해야 향후 발전적 보육 시설 운영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교정시설 의료처우

- 일본은 수용자 의료처우를 전담하는 의료형무소 4개소, 의료기능중점형무소 9개가 마련되어 있음. 그 중 오사카의료형무소는 일본 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교도소임.
-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교정시설 중 의료교도소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교정시설에서 의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수용자의 고령화 등으로 교정시설 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교정청별 의료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교정시설을 계획하고 지역거점 국공립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함.
- 일본은 의학, 의료기술, 의료장비 수준이 높아 의료형무소는 내시경, X-ray 4대, CT, 초음파, 인공투석 3대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진단, 화학요법, 혈액투석, 수술 등의 치료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교정시설 내 의사, 간호사, 약제사, 방사선사 등 상근·비상근의 의료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은 수용자 의료처우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정시설 내에서 해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우선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기에는 OECD 국가들 대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의료인력의 수가 매우 적다는 이유도 있음. 다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의료인력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처우의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